

“‘이재난고’ 보물 승격해야”

고창군, ‘고창출신 실학자 이재 황윤석 선생 일기’ 보물 지정 위한 학술대회 가져

고창출신 실학자 이재 황윤석 선생의 일기 ‘이재난고(정라북도 유형문화재)’를 보물로 승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오전 고창군이 주최하고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소장 한문종)가 주관하는 ‘이재난고 보물승격을 위한 학술대회’가 고창고인돌박물관에서 열렸다.

학술대회는 소강준 교수(전주대)가 ‘국어학에서 본 이재난고의 가치’를 주제로 첫 발표의 포문을 열었다. 소강준 교수는 “우리 교유의 지명과 불명에 대한 상당수의 한글 또는 차자 표기 자료가 수록돼 부족한 근대국어 지명자료를 보충할 수 있게 됐다”며 “18세기 근대국어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던 음운현상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해 근대국어 음운론 연구 자료로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안대희 교수(성균관대)가 ‘이재 황윤석의 풍속사적 관심과 기록’을 발표했고, 김경숙 교수(서울대)가 ‘생활사에서 본 이재난고의 사료적 가치’, 구민욱 교수(경희대) ‘과학사의 측면에서 본 이재난고의 사료적 가치’, 김영미 교수(전북대)가 ‘이재난고의 문학적 가치’를 각각 발표했다.

이재난고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박정민 교수(전북대 사학과)는 “학자들의 연구 대상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을 넘어 국



지난 22일 오전 고창군이 주최하고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가 주관하는 ‘이재난고 보물승격을 위한 학술대회’가 고창고인돌박물관에서 열렸다.

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당대의 기록이 현재의 삶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고, 시공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히는 일에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재난고’는 조선시대 타임캡슐이라 불릴 만큼, 국가적으로도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으나, 그간 도유형 문화재로 머물러 있어 안타깝다”며 “우리나라의 대표 기록유산이자 조선시대 문화콘텐츠 보고인 ‘이재난고’가 보물로 승격될 수 있도록 고창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재즈 역사 연주 ‘전주미니재즈페스티벌’

재즈 피아니스트 오은하, 8월 22일까지 매주 월요일 공연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즈 피아니스트 오은하(사진)가 전주미니재즈페스티벌-재즈인물백과사전(주관 현대음악발전협회)에서 공연을 한다고 밝혔다. 전주미니재즈페스티벌은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실시하는 소극장(소공연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현대음악발전협회(대표 김주환)가 계획한 공연이다.

오은하는 버클리 음악대학을 졸업, 디즈니 ‘Junior Ready For Preschool 시즌1’ 한국판 음악감독, 전주 전동성당 분당 미디어 아트쇼 ‘빛의 성당 FIAT LUX’ 음악 작·편곡을 맡는 등 음악가로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이에 따르면 전주시 더 바인홀에서 개최되고 있는 ‘전주미니재즈페스티벌’에서 8월 22일까지 매주 월요일 공연을 하고 있는 오은하는 “도내에서 재즈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곁들인 공연을 접할 기회가 드문 것 같다. 이번 공연을 통해 도민들에게 재즈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고, 연주를 들려줌으로써 재즈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전주미니재즈페스티벌을 기획한 김주환 대표는 “가볍게 소비되는 재즈 무대가 아닌, 재즈 음악과 뮤지션에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고 싶었다”며 “공연을 거듭할수록 참여 관객이 늘어나고, 관객들



의 집중도가 눈에 띄게 높아지는 걸 보면서 큰 힘을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오은하가 참여 중인 이번 전주미니재즈페스티벌-재즈인물백과사전은 7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공휴일 제외) 네 명의 재즈 아티스트(오은하, 박종훈, 정영관, 탁경주)가 음악을 소개하고 있다.

공연은 각 회당 1만원으로, 예매(사전, 현장)할 수 있다. 예매 및 문의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더바인홀’ 검색 후 채널추가를 통해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익산 전국 생활문화 색소폰 경연대회 참가하세요”

8월 12일까지 신청 접수

익산시는 ‘2022 익산 전국 생활문화 색소폰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참가자격은 전국 중·고등학생, 대학교 재학생, 일반부(독주), 앙상블 부문(2인 이상)이며, 신청접수는 이메일 접수와 방문접수를 통해 8월 12일까지 받고 있다.

다음달 21일 배산체육공원 야외공연장과 원광정보예술고 은파관에서 오전에 예선을 치른 후,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배산체육공원 야외공연장에서 본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익산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이사장 이명준)와 익산색소폰 오케스트라(단장 김장학)가



공동 주최하고, (사)익산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생활문화예술동호인들이 참가해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야마추어 색소폰 경연대회로 자리매김 할 것

로 보인다.

시상은 대상 1개팀(ELF919 반주기), 금상 2개팀, 은상 2개팀, 동상 2개팀, 장려상 2개팀, 인기상 1개팀에게 상장과 부상이 주어진다.

또한, 경연대회 외에 전북페스티벌 색소폰 오케스트라, 색소포니스트 손 진의 축하공연이 펼쳐져 풍성한 볼거리로 익산을 찾은 이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이명준 이사장은 “2022 익산 전국 생활문화 색소폰 경연대회는 전국 색소폰 동호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가로 경연과 더불어 큰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 익산 전국 생활문화 색소폰 경연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사)익산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063-837-0717)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시립예술단, 소룡동 야외수영장서 작은음악회 열어

소룡동 야외수영장 개장을 맞아 시립예술단이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실시한다.

군산시 시립예술단은 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를 지난 23일 오후 1시 30분 소룡동 야외수영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소룡동 야외수영장 개장을 맞아

시립합창단 16명, 교향악단 15명이 출연했다.

프로그램은 시립합창단 혼성중창, 금관 앙상블 등으로 도레미 송, 겨울왕국메들리, 만화영화 OST멜로디 등 아동과 시민이 좋아하는 곡들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이번 공연은 마스크 미착용 관람객 공연 관

람 금지 등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이뤄졌다.

시립예술단 관계자는 “소룡동 야외 수영장 개장을 맞아 수영장을 찾은 시민들이 쉽게 보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공연을 진행했다”면서 “시민들이 합창과 교향악을 보다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관근 기자

전주대 예술심리치료학과 예술제 30일 개최

전주대학교는 오는 30일 오후 2시 학생회관 3층 Super Star홀에서 예술심리치료학과 예술제(음악회&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술제의 타이틀은 ‘우리들의 이야기 (Our episode 5): Begin Again’으로, 예술을 통해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우리들의 일상을 다시 회복하고 모두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행사 당일 학과 구성원 간의 화합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 친구들을 모두 관객으로 초대해 화합의 장을 마련, 더 나아가 예술심리치료학과와 실습 및 인턴기관으로 협약을 맺은 기관 담당자와 전주 지역 고등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모두 초대된다.

이번 공연을 총괄한 김세은 학생은 “예술제가 모두에게 힘과 같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관객들이 예술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혜진 학과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지친 모든 관객이 음악, 미술, 춤을 통해 회복하며 서로 응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공연 연습, 전시회 준비, 무대 연출 등을 위해 수고한 학생들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예술제는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으며, 관람 문의는 전주대학교 예술심리치료학과 행정실(063-220-2046/jmi1214@j.ac.kr)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